

김원이 의원 “2,339억원 증액”

목포 지역예산 “8,916억원 대거확보”



김원이 의원이 2021년 정부 예산 안에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건설(2,542억원), 목포-송정 호남고속철도(4,240억원) 등 대형 SOC분야에서 정부예산보다 크게 증액시켰다. 이는 목포 핵심사업으로 물류·관

광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번 예산은,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당초 정부안 6,577억원보다 2,339억원 증액된 8,916억원을 지역예산으로 확보했다. 특히 목포역과 원도심 대개조 사업

실행을 위한 첫 단계인 ‘목포역 철도 시설 재배치 연구용역비’를 예산안에 1억 5천만원 반영시켰다.

이는 김 의원의 총선공약으로, 서남권 유일의 관광 거점도시 관문인 목포역의 철도시설 재배치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용역비이기에 김 의원의 전방위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호남권평화+통일센터 27억, 북항 어선 물양장 확충 78억 등 5개 사업을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확보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전남도와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함께 노력해주신 목포시·전남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목포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국회의원(목포) 신년사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 존경하는 목포시민들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2020년 경자년은 코로나19로 참 어려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새로운 목포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당정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남 한 곳 뿐입니다. 반드시 목포의대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목포시 국비 지원이 당초 정부안 6,577억원에서 8,916억원으로 늘어 2,3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총선공약인 목포역과 원도심 대개조 사업을 위한 첫 단계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연구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도 이끌어냈습니다.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문제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40건의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중 코로나 19 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신재생에너지법’ 등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저는 공직에 들어선 이래, 제민지산(制民之產),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다”는 말을 항상 가슴에 품고 일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제민지산의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국회의원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당선 이후 시민과 함께 하는 목포정담을 19회 개최했는데, 앞으로도 목포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들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의 금귀울래의 헌신, 윤소하 선배님의 목포 사랑을 이어받아 시민 여러분의 삶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입니다. 늘 현장에서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했던 성원을 늘 기억합니다.

코로나 19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목포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점사업

목포역 재배치 연구용역 1억 5천만원
호남권평화+통일센터 건립 27억원
목포-송정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4,240억원
북항 어선 물양장 확충 78억원
고하도 세월호 생명기역관 건립 18억원(설계비)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132억원

■교통

남해안 철도(목포-보성간) 건설 및 전철화 2,542억원
국도77호선 (압해-화원) 연결 도로개설 298억원

■관광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65억
1897 개항 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 46억 4천1백만원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원형회복 12억 6천만원
근대문화사길 보행환경 조성 5억원

■문화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 80억원
옹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주거지 주차장 포함) 31억 5천만원
평화광장 해양 레저스포츠센터 건립 14억 3천1백만원
목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10억원

■수산업

북항 활어 위판장이 신축 됩니다 6억 5천만원
수출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 14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0억원

■친환경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60억원
친환경 대체연료 실증 기술개발 60억원
스마트 선박 안전지원센터가 구축됩니다 18억 5천만원
전기 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30억원

■섬주민

도서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33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12억원
고하 만남 생태공원 조성 6억원
고하도 해상테크 진출입 개선 9억 5천만원
달리도-외달도 해상보행 연도교 개설 14억 4천2백만원
달리2구 해안도로 개설 5억원
장차도 선착장 조성 7억원

■목포정비

신항 배수지 신설 20억 3천만원
목포 신항 배후단지 조성 106억원
서산동 보리마당 뉴딜 33억 1천만원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 사업 10억원
대반동지구 연안 정비·조성 20억 2천 8백만원
해변 맛길 30리 조성 20억원

코로나 제3차 피해지원금 지급! (11일~)

고용취약·소상공인 396만명 5.6조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올해 연말까지 연장

김원이 “내년 이후 대비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의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정과 목포·영암을 비롯한 7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 추가로 연장했다고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

다.

또 조선업 위기로 고용 사정이 악화한 목포·영암을 비롯해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 구, 울산 동구 등의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올해 연말까지 계속된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조선업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과 군산시 등 7개 지역의 경제·고용 지표가 계속 악화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각종 통계와 보고서를 인용해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지표만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취소한다면 그나마 유지되던 지역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려는 참에 지원을 끊는다면 희망의 싹을 죽이게 될 것”이라며

연장을 주장했다.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직업훈련지원금 지급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 △고용촉진지원금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혜택이,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생활자금 융자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

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등의 지원이 계속된다.

목포시는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2018년 57억원(희망근로사업비), 2019년 315억원(보통교부세+희망근로사업비), 2020년 288억원(보통교부세+희망근로사업비)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내년에는 173억 원(보통교부세) 가량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2021년 희망근로사업비는 추후 목포시 신청 후 선정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기한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 주요 법안 발의 내용

- 민생과 지역상생을 위한 법률안
- 대표발의 40건, 공동발의 361건) 발의
- 대표발의 9개, 공동발의 5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1호’ 법안,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목포대 의대 신설을 위한 근거 마련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본회의 통과)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득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 ‘철도산업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관련 철도유류부지 활용 촉진

-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본회의 통과)
- 목포를 비롯한 신안·무안 등 서남권 섬 발전을 위한 ‘한국섬진흥원’ 설립

주요법안 발의 내용

- 민생과 지역상생을 위한 법률안
- 대표발의 40건, 공동발의 361건
- 대표발의 9개, 공동발의 5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방세 세수 안정성 확보 및 자율재정권을 위한 ‘지방세법’, ‘보조금법’
-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 지역예술인을 위한 온라인 공연·전시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문화진흥법’
- 균형있는 지방교육의 정책과 재정의 자율성을 명시하는 ‘교육기본법’
- 잘못된 인터넷 언론보도 등으로부터 인격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 국회의원록에 시청각 자료를 게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회법’
- 국가지정문화재 손실보상 절차를 빠르게 정립한 ‘문화재보호법’(본회의 통과)
-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자연생태계 훼손 시, 처벌하게 하는 ‘무인도서법’
-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
-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본회의 통과)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시, 지자체장의 역할·권한을 강화한 ‘감염병예방법’(본회의 통과)
- 어린이집 원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 권한을 부여한 ‘영유아보육법’(본회의 통과)

김원이, 발로 뛰며 고용위기지역 연장 이끌어냈다

국회·정부·청와대와 긴밀한 접촉 연장 필요성 설득

김원이 의원이 목포·영암을 포함한 전국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목포·영암을 포함한 현행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2021년 말까지 모두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지난달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한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사진>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중소 지방도시의 희망의 싹이 되어주길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포, 영암지역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통해 일자리 부족이나 인구 유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김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위해 목포시와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사안을 신속히 공유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목포·영암의 일자리 현실을 이야기 해왔다”면서 “앞으로 목포시민과의 꾸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기한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 한국 섬 진흥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원이 의원이 지난달 1일 한국 섬 진흥원 설립을 주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섬은 보존 및 개발해야 할 해양자원으로서 지정학적 가치, 레저·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섬 관리 및 연구·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자료 축적 부족과 부정확한 통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업 미

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꿔 제명해 ‘섬 발전 촉진법’으로 하고, △섬 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국 섬 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해 국내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관리, 연구 및 진흥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

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21대 총선 공약인 ‘한국 섬 진흥원’의 설립으로 전국의 섬 주민 소득증대와 열악한 복지 환경개선은 물론,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설립 시기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남 서남해안에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 청년수당 지급 법제화 추진

‘청년기본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사회참여 기회 확대

김원이 의원은 18일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비인 청년수당 지급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해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 김병기, 박홍근, 양정숙, 이규민, 이상현, 이정문, 장경태, 조승래, 최혜영, 허종식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 서남권 친환경 수산 종합지원단지 조성, 어민을 위해 나서다!

지난해 12월 21일 서남권 수산종합 지원단지가 준공돼 운영되기 시작했다. 국내 수산물 최대 산지 중 하나인 서남권의 수산물 위판부터 가공·저장·판매, 유통 공급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그렇지만 연간 생산량 등에 맞는 시설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으며, 시급한 논의와 해결이 필요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6월 27일 '목포정담 시민경청회'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11월 7일 목포시와의 당정협의 개최, 11월 28일 현장방문 경청회 등을 연속으로 진행하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우선 필요한 냉동 및 냉장시설(제빙·저빙 포함)을 확충을 위한 제안 마련 하도록 협의했다. 목포시와 협의하여 신규로 조성된 수협의 냉



동·냉장시설을 임시 사용, 긴급가동 조치 및 인근 지역의 제빙(얼음) 활용가능량을 파악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이와 관련한 운반비는 수협과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필요한 시설과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수산물 유통물류센터 등 국비 확보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앞으로 스마트 수산물 유통 시설 확충, 변화하는 비대면 시대에 맞는 유통(풀플드체인) 체계 구축 등 수산물이 지역경제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 할 것이다"고 밝혔다.

목포지역위-목포시 2020하반기 당정협의회

김원이 의원, '새로운 목포 위해 시정 적극 협력' 약속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 9건 논의

목포지역위원회와 목포시는 지난 11월 7일(토)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2020 하반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협의회에는 김원이 의원과 김종식 목포시장, 전경선 도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및 핵심 당직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용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협의회에서 목포시는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해양경찰 서부정비장 건립, 한국 섬 진흥원 설립 및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 등 9건의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첫째,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개발 설계비 등 2021년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해 듣고, 사업 조기 착공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4일 김원이 의원의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주민 이익공유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공유했다.

둘째, 해양경찰 서부정비장 신설 사업비(국비 1,994억 원, 신항만 허사도 일면 10.9만㎡) 증액 요청(약 400억 원)이 있어 증액분에 대한 기획재정부 설계 적정성 검토 중이며, 목포시와 협력해 증액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셋째, 한국 섬 진흥원 설립에 대해

서는 9월 28일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이 법안통과를 위해 심의중이고, 섬 진흥원 설립 연구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높게 나온 만큼 섬 진흥원 설립과 목포 유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넷째,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과 관련, 2019년 설립된 <2028세계 섬엑스포추진준비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전략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섬의 가치와 인식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 추진 용역비(150백만원)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목포역을 시민 광장으로 조성(랜드마크형 역사 신축 및 민주시민광장 조성, 복합 시설 추진)하기 위한 당·정 TF팀을 구성해, 호남선 출발역이라는 높은 상징성에 맞는 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섯째,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가연장과 관련, 지역 주력사업인 조선사업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년 추가연장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일곱째, 목포수협 이전 잔여부지 활용 및 여덟 번째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수협 이전), 아홉 번째, 목포항 수산 가공, 냉동시설 대책에 대해서도 어민단체와 수협의

어려움을 잘 듣고 신속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김원이 의원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당선 후 지금까지 평일에는 국회, 주말에는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김종식 시장님과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시장은 "목포시민을 위한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이 원활히 잘 되고 있고, 노고에 감사하다. 위대한 목포시대, 새로운 목포시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은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강화와 낭만항구 목포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목포시에서 실 틈이 없이 수고해주고 있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정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총 4회)로 정례화 해 진행키로 했으며, 당 대변인이 결과를 목포시민들에게 브리핑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에는 당 소속 전경선, 이혁제, 박문욱, 최선국, 조옥현 도의원과 정영수, 김관호, 김오수, 김휴환, 박 용, 문상수, 이형완, 박용식, 김근재, 김양규, 김수미, 이금이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원이 의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위한 '정부 원칙' 강조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 실태를 열거하며 "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계획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첫 번째 국감 질의에 임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4년간 늘어난 의사 인력 1만 명의 활동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27.4%, 경기가 29.9%, 인천 7.6% 등 상당수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반면 강원도는 1.8%, 충북은 1.8%, 전남 1.1%, 전북 1.9%로 활동 의사들의 지방 기피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은 0명인데, 전남의 경우 328명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열거하며 "섬이나 농어촌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신하기 위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가 40년 전에 만들어져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늘고 있

으며, 주로 섬과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이는 의료현실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지만, 대도시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사 인력이 필요한데 확보를 못해 마련한 제도로 간호사나 조산사 등으로 구성된다"며 "이 제도는 임시방편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한국에서 섬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의료차별 문제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과 잘 소통하고 설득해서 의대 정원증원, 공공의대 신설,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예정대로 잘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정인이 사건 철저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지자체 사법경찰권 부여, 입양아동 관리감독 강화 촉구

김원이 의원(원내부대표)은 5일 '정인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 미안함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의 입양아동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들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개선방안도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가 사망하기까지 이미 3차례나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에 대해 확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에 출동하지만 현장개입 및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과 공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정인이 사건처럼 공조가 원활하지 못해 지자체 등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후야야 제도개선이 논의되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법안 발의

김원이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백신 국산화 촉진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국가 간 교류 증가 등에 따라 치명적인 신종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백신 개발 지원체계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방백신이 없어서 조기차단에 실패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 위협과 경제적 손실 등을 유발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계속되고 있

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중소 바이오업체들의 경우 백신 개발 인프라 부족으로 임상 검체 분석을 외국 회사에 위탁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백신센터가 구축되면, 백신 자급률이 높아져 면역력이 약한 영아, 노인 등 국민보건 안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센터 기본설비 구축, 임상시험 검체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등을 위해 예산 편성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원이 전하는 소리



이안용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협력사대표협의회 회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운 국면에 지역발전과 국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2월에 정부에서 영암,목포지역도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2021년까지 연장 한다는 발표가 있기까지 각종 지표상 선정이 안될수도 있었는데, 선정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더불어 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님, 서삼석 국회의원님, 김영록 도지사님, 김종식 목포시장님, 전 동평영암군수님과 관계자들께도 현대삼호중공업 62개 사내협력사 대표님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사내협력사들은 조선 불황과 코로나등으로 많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니다. 그러나 이번에 1년간 연장되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특별고용지원 업종"연장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 경영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협력사 대표 협의회에서도 지역인력 채용 및 현재의 인력의 고용유지와 함께 적극적인 추가고용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향후에도 7500명에 달하는 저희들 사내 협력사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도와 목포시, 영암군의 발전과 김원이 국회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무한한 지원을 드립니다.

더 좋은 목포를 위한 김원이의 소통과 공감 "목포정담"



박지원 대표님의 "금귀월래"를 이어받은 김원이의 "목포정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목포시 수협위원장 앞바다 3만톤급 부두 확충계획 관련 시민 의견 청취 (6.6.)
2. "잘살고있나?" 목포살이 청년들과 근황토크 '비어비위' (6.13.)
3. 장마철 대비 목포 관내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현장 방문 (6.20.)
4. 목포수협위원장 이전에 따른 어민 의견 청취 (6.27.)
5. 전남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장단과 대화 (7.4.)
6. 옥암지구 고교이전 등 신도심 교육 발전방안 모색 (7.17.)
7. 물리치료사 협회 함께 하는 시민경청회 (7.25.)
8. 실뱀장어연합회와 함께하는 시민경청회 (7.25.)
9.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점검 배수펌프장, 영산강하구둑 현장방문 (8.8.)
10. 수협위원장방문 목포어선조업관련 현안 청취 (9.30.)
11. 대연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 시민의견 청취 (10.17.)
12. 장애인 정책 관련 의견청취 (10.24.)
13. 양로시설협의회 의견청취 (10.24.)
14. 수산종합단지 조성, 목포항 수산 가공 냉동시설 대책 수립 (11.28.)
15. 전라남도 약사회 현안 청취와 대안 모색 (11.28.)
16. 조선소 협력업체 애로 해소를 위한 의견청취 (11.28.)
17.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12.19.)
18.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급식실 운영 어려움 현안 청취 (12.19.)
19. 목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 현안 청취 (12.26.)

후원안내

후원계좌 : 농협 301-0262-9503-11
 예금주 : 국회의원김원이후원회
 후원문의 : 지역사무실 : 061-284-0235
 국회의원실 : 02-6788-6286-9

<김원이 의원 약력>

1968년 신안군 출생
 목포용호초등학교 9회 졸업
 목포제일중학교 33회 졸업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 10회 졸업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졸업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제21대 국회의원 (목포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추모분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발전분과 위원

<주소, SNS>

국회사무실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23호
 지역사무실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95, 포르모큐브 3301호
 김원이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imwoni8182>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imwoni8182>

목포시, 문학박람회로 문화도시 출사표

국내 첫 문학 주제 박람회 10월 개최

문학의 대중화와 목포문학의 고유성 조명에 중점

목포시가 문학을 앞세워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목포시는 오는 10월 개최를 목표로 '2021 목포문학박람회'의 뼈대를 살을 붙여가고 있다. 문학박람회는 지난해 12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예향(藝鄕)으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는 목포의 야심작이다. 기초지자체가 문학을 주제로 전국에서 처음 개최하는 박람회라는 점에서 문학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등 3대전략산업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면 문화예술은 목포의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분야라는 점에서 매우 중



요하다"면서 "문학박람회는 목포 문화예술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문학계의 빛나는 별들

문학은 목포의 값진 자산이다. '한국 근대극 창시자' 김우진, '한국 최초의 여성 장편소설가' 박화성,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완성자' 차범석, '한국 문학평론의 창시자' 김현 등 우리나라 문학사의 빛나는 별들이 목포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했다. 이 밖에 전후 최대의 작가로 평가받는 소설가 최인훈,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던 문학평론가 황현산, 지난해 별세한 소설가 겸 극작가 천승세 등도 목포와 인연이 깊다. 목포처럼 다수의 유명 문학인을 배출한 지방 도시는 흔치 않다. 목포는 이런 풍부한 문학자원을 바탕으로 문학박람회에 자신있게 출사표를 던졌다. ■ 문학의 대중화와 목포문학의 고유성 조명 목포의 10월은 낭만의 계절이다. 도시 곳곳에서 버스킹 연이 펼쳐지고 다양한 문화예술축제가 열리는 가을페스티벌이 10월을 수놓는다. 문학박람회는 10월초 4일간 목포문학의 중심인 목포문학관을 비롯해 도심과 평화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학박람회 개최를 본격 준비해 온 시는 폭넓은 의

견 수렴을 위해 문학인과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해왔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해 밑그림을 마련했다. 박람회 주제는 '목포,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가칭)로 부제인 '읽고, 새롭고, 즐거운 문학! 목포에서'(가칭)에서 나타났듯 문학의 대중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박람회가 의미 뿐만 아니라 흥미도 담보해야 하는 행사라는 점에 맞춰 문학을 목포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실험적이고 새로운 문학콘텐츠를 통해 문학을 재발견하는 한편 문학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해 목포문학의 개성과 고유성을 공유할 4인4색 문학제, 수려한 경관 속에서 감상에 빠질 수 있는 문학관광상품 등을 구상했다. 김종식 시장은 "문학박람회는 목포만의 고유한 문화행사다. 목포에서 새롭게 시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면서 "목포가 문학으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도시임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새해 포부] 김종식 목포시장

“3대 미래 전략산업 육성 위해 역량을 결집”



“신재생에너지·수산식품·관광 등 3대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는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하면서 발전의 길을 개척해왔다”며 “코로나 극복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과들을 하나하나 수확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신재생에너지·수산식품·관광산업 추진 가속도 목포역 대개조·2026세계 섬 엑스포 유치 총력

밝혔다. 김 시장이 구상하는 올해 목포 주요 현안은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업 등 3대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예비문화도시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은 해상풍력과 친환경선박 등 2개 핵심사업의 속도감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 중 해상풍력 분야는 신항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건설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대양산단에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을 조성해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선박산업은 남항을 기술개발,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가 집약된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대개조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 추진 선박 및 이동형 전원 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실증 ▲전문 인력 교육·연구기관 조성 등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은 1천89억원이 투입되는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연내 착공해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어묵과 김은 지역 대표상품 육성을 위해 산업 기반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관광 분야는 코로나 극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과 새로운 계획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키로 했다.

2024년까지 1천억원이 투입되는 관광거점 도시사업은 올해 130억원을 들여 목포 관광자원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평화광장 바다분수 해상무대 공연을 신설하고 대반동과 목포대교 일대 야간 경관을 특화한다. 원도심 일원에 1897관광루

트를 조성하고 옛 세관창고를 미식관광 플랫폼으로 탈바꿈시켜 문화체험콘텐츠를 강화한다.

평화광장부터 목포해양대를 잇는 해변 맞길 30리 조성사업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옛 수협에서 목포해양대학교 구간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5년간 200억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 1차 관문인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문화도시 연구개발(R&D) 사업, 문화기획자·문화큐레이터 양성 사업을 추진해 문화도시 최종 지정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10월 개최 예정인 문학박람회는 전국 최초로 열리는 만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꼼꼼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밖에 목포 미래 주요 현안인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대개조 ▲2028 세계섬엑스포 유치 ▲목포대 의대 유치 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시장은 “흰 소띠 해인 올해 목포시정은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안팎의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계획들을 독심있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 자유시장 명품시장으로 거듭난다”

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공모사업 선정

...2년 간 9억2천만 원 투입 복합문화공간 등 조성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영혁신을 돕고 체류형 관광을 견인하기 위해 총 사업비 9억2천만 원을 투입해 '자유시장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 지난해 9월 자유시장이 '문화 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김종식 시장은 “문화 관광도시 목포 명성에 발맞춰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이라며 “이 프로젝트의 주 테마는 ‘자유시장·남진 야시장 브랜드 강화와 특화상품 개발’”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핵 점포 6개소를 유치, 개발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특화상품 메뉴 개발을 비롯해 소포장, 장터·야시장 운영, 문화예술 행사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자유시장 명품시장 만들기의 핵심 테마는 Redesign(매력적인 시장 환경 조성), Refresh(자유시장 만의 특화상품 개발), Remind(매력 발산, 홍보마케팅) 등 3R이다.

3R를 통해 목포자유시장과 남진야시장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특화요소를 접목시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게 목포시의 목표다.

세부적으로 매력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복합문화공간 '자유로 122'공간 보안, 자유시장 먹거리타운 조성, 자유시장 테마스토어 조성 등이 추진된다.

자유시장만의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해산물 테마 먹거리 개발을 비롯해 해산물 제품 개발, 로컬 푸드&로컬아트 장터, 자유시장 소포장 사업 등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자유시장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지역 대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시장,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에 아동보호 현안 건의

양 차관, 전남 아동복지시설 방역현장 점검차 목포 방문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아동보호의 현안 사항 등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전남 아동복지시설 방역현장 방문을 위해 목포시청을 찾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아동 정책을 소개하고 방역 대응 등에 대해 폭넓게 대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행식 전남사회복지사협회장, 김미자 전남아동복지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양 1차관은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의 헌신과 노고로 전남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종사자의 확진사례가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선제 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해 차질없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시설 아동과 학대피해 아동의 건강·안전 확보를 위해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에는 13개 아동생활시설에 입소자 320여명, 종사자 15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시는 감염 취약계층 거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1대1 간부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 부주산 근린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된다.

목포시는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도 커져가고 있어 부주산 근린공원 약 3,500㎡(1,060평) 부지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반려동물 동호회 등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역을 답사해 반려동물 놀이터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지난해 12월 조성공사에 착공, 오는 6월 준공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동물과 양육자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형견과 중소형견 놀이터를 구분해 조성하고 동물전용 놀이시설, 격리장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양육자를 위한 의자, 그늘막 등 쉼터도 설치된다. 시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양육자와 반려동물



반려동물 놀이터 조감도

의 행복한 동행에 더해 부주산 근린공원의 경관까지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에는 반려견 7천6백여 마리가 등록된 상태다. 이는 60% 가량이 등록된 것으로 추정돼 목포시 전체 반려견은 1만 마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문옥 도의원,

‘전남인재육성지원조례 개정안’ 등 3건 대표 발의



박문옥 도의원(목포 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지난달 10일 제348회 정례회 제7차 상임위 회의에

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년차를 맞는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 인재육성 추진성과를 내실화 하고 도세 감면 등 도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를 추진한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성과를 내실화하기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정비하게 되었다”며 “인재육성 지원으로 성장한 훌륭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박 의원은 ‘인재육성지원조례 개정안’ 외에도 ‘전남 도세조례 개정안’, ‘전남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조례개정안은 지난달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 시의원,

‘2020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박용 목포시의회 의원(부주·신흥·부흥동)이 ‘2020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시·군·구의회 의원 중 코로나19 방역·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범적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선인 박 의원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목포 시내버스 과업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비교견학 등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또 지역 숙원 사업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유치에 위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더 열심히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옥현 도의원, “동남아·인도 시장개척 나서야”



조옥현 도의원(목포 2)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인도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인도는 빠른 도시화와 소득증가로 소비시장의 규모로 볼 때 시장개척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며, 도내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농수축산물 업체의 인도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인도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제반

목포 백년대계(百年大計) 큰 그림

...강한 경제 드라이브

계획을 마련할 때”라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지금부터 10년 후를 대비한 미래준비를 해야 한다”며 “목포대양산단에 조성될 수산식품수출단지의 성공이 동남아, 인도 시장개척에 맞닿아 있다”며 시장개척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국내 수산물 수출 1위인 ‘김’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김 수출은

원료를 공급하는 후진국형 구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수산식품수출단지 수출주도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국제수산물거래소 등의 기능을 해야 하며, 국립 김연구소 유치와 김산업 특구지정 등이 이뤄지고, 목포 신항에 물류항의 기능을 갖춰 한반도 H자 경제축의 기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광역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전남 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칭)’ 제정을 준비중이다. 또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 개선, 문화예술 지원, 관광산업 진흥 등 목포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최선국 도의원,

“전남도 보건·환경 분야 영터리 행정 질타”



최선국 도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목포3)이 전남도의 보건·환경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도의 영터리 행정을 연일 질타했다.

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서 도 보건환경연구원

이 운영 중인 미세먼지나 오존주의보 알림시스템이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지적한 미세먼지나 오존주의보 알림시스템 경보 발령의 경우 전남도는 현재 동부권과 서부권 단 두 권역으로만 나눠 발령 중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경보권역이 넓어지면 측정값이 하향 평균화될 수밖에 없어 오염원이 밀집된 여수, 순천, 광양권의 경우

수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 도내서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망은 38개소 달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동부권과 서부권 단 두 곳만의 경보 발령이 아닌 이를 세분화해 지역별 대기오염 발령을 한다면 더 정확한 대기오염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다 지역의 경우 경보발령 권역을 촘촘히 세분화해 미세먼지 경보 알림을 발령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지형과 산업 분포에 따라 세분화 된 전남형 경보시스템 도입으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혁제 도의원, 19개 조례와 건의문 대표발의



이혁제 도의원(목포 4)은 19개의 조례와 건의문을 대표발의하는 등 대표적인 정책의원으로 정평이 나았다.

또한 초선으로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목포지역 예산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남도의

초선 예결위원장 역임...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맹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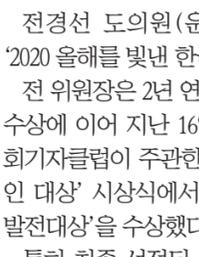
회 교육전문 의원으로서 맹활약 중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전남 고교무상교육, 전남교육청 재난지원금 지급, 학교밖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전남 중·고교생 무상교복, 무상교과서 지급 정책의 중심에서 서서 역할을 했다.

또한 목포청초 초화살집 전면 개선, 목포항 도여중 천연잔디 운동장조성 등 목포지역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으며, 2023년 개원예정인 유아교육진흥원 서부분원 목포유치를 이끌어 내어 동부권과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또한 목포시 상동·옥암동·삼향동의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도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상동 양울산 레포츠 공원 친환경 놀이터 및 야외무대 공연장을 100% 도비로 완공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아파트 환경 개선에 수 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경선 도의원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수상’



전경선 도의원(운영위원장·목포5)이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전 위원장은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에 이어 지난 16일 한국언론연합회와 국회기자클럽이 주관한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의회부문 올해의 의회 발전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최종 선정된 의회부문 총 7명의 수상자 가운데 수도권이 아닌 유일한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남도의회 운영전반을 총괄하며 지역사회

를 위해 헌신해 온 전 위원장은 “뜻밖에 좋은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면서 “코로나19로 지역살림이 걱정이지만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은 한국언론연합회와 국회출입기자클럽이 주관하며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평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유능하고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이금이 시의원,

다함께돌봄센터운영조례 대표발의



이금이 시의원(비례표)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는 초등학교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 보장 및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다함께 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등으로 지자체마다 인구절벽에 서 있는 현실에서 어린학생들의 방과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 보장은 물론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수미 시의원(비례)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의정활동 우수사례 공모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평등정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지난 2008년 출범했으며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여성 지방의원 1060여 명이 활동하는 단체다.

김 의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정책이 될수 있는 환경조성과 아울러 아동들을 위한 창의적 놀이터 구성 및 성인지 예산 관리를 강화를 위해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어린이놀이터 문제점과 노인복지시스템에 대해 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정책이 부족해 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조례제정으로 이어지게 했다.

김휴환 시의원, “도와 시·군간 지방비 부담 기준 조정” 대표 발의



김휴환 의원(원산·연산·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도와 시·군간 지방비 부담 기준 조정 건의안’이 제 362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기준 부담률’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111개 사업에 대해서만 도비, 시·군비 부담률이 명시되고 외의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 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시·군에 대한 기준 보조율을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사업별로 도시사가 따로 정한다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의 포괄적 규정이 행정의 예측성을 저해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형완 시의원, 시민 애로사항 청취 법안으로



이형완 시의원(나선거구, 목원·유달·동명·만호동)은 현안문제인, 늘어나는 빈집 해결방안으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빈집 실태조사 요구와 함께 빈집을 문화예술인,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대표자 선출 등 전자투표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힘썼으며, 도시재생의 문제점(직원의 전문성 제고, 지원센터의 독립성 문제)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더불어 새벽에 수협 위관장, 구 청호시장, 삼학도 등을 방문 민원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행정감사나 시정 질문을 통해 해결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박용식 시의원, 심도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돋보여



박용식 시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용당1,2동·연동·삼학동)은 21일 제36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본 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속에서도 예결특위 위원 전원은 예산항목 하나하나 신중을 기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파악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각 상임위의 심사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합리적인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세입예산 7,752억 5,706만원 중 10억 2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8,565억 9,080만원 중 60억 1,264만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시정 1건, 권고 11건에 대해서 목포시 시정에 반영토록 했다.

신년사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과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K-방역을 이끌며 다른 OECD 회원국들 보다 더 나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지역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지만,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여러분들에 적극적인 개인방역 활동으로 대량 확산을 막았습니다.

또한, 관광·수산식품·신재생에너지 3대 전략산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형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등 목포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포시를 중심으로 목포시의회와 시민여러분들께서 하나 되 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의회도 지난해 코로나19 극복과 목포 발전, 시민의 복리증진, 의회의 발전

을 위해 힘 없이 뛰어 왔습니다.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하고,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제362회 제2차 정례회부터 시작된 시민모니터링단 활동은 의회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동료의원들에게는 동기 부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발로 뛰며 힘 없이 달렸던 만큼 보람도 크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새해에도 코로나19 극복과 목포발전, 시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며 시민여러분께서 행복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목포가 3대전략산업 기반 확충과 목포다운 가치상승을 이끌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세계 섬 엑스포 유치 도전 등 미래를 위한 비전들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에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목포시의회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며, 계획하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 시의원,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대표발의



김관호 의원(하당동, 이로동)이 목포시의 스마트 도시 조성 및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를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된 이 조례는 주요내용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계획수립 △통합운영센터 설치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김관호 의원은 “스마트 도시 정책 추진과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양규 시의원 대표발의, ‘수화언어 활성화 조례’ 가결



목포시의회 제36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에서 김양규 의원(삼향·옥암·상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목포시 청각장애인과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수

김근재 시의원, 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당 대표 포상



김근재 목포시의원(상동·삼학동·옥암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당 우수조례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홍영표)의 ‘2020년 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이낙연 당 대표의 특별포상을 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장애인들의 말에 더욱 귀기울이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어활성화를 위한 지원, 편의시설 설치 권장 등을 담고 있다.

김양규 의원은 “우리사회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환경적 제약 등으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뿐만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조례가 청각장애인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화언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상수 시의원, 소상공인에 코로나 방역물품 전달



문상수 의원(죽교·산정·대성·북항)은 목포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들을 찾아갔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목포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준비한 열체크기, 소상공인 홍보책자, 마스크, 방명록, 위생장갑등을 나눠드렸다.

정영수 시의원, 원도심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정영수 시의원(나선거구, 목원·유달·동명·만호동)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중인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임대료를 1년에서 2년으로, 수선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강화했다.

또 전국 최초로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도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서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 영산강하구둑 배수갑문 개방으로 쓰레기와 함께 흘러내린 강물이 달리도와 외달도 전복양식장을 덮쳐 전복이 집단폐사했다.

정 의원은 당시 김원이 국회의원과 함께 현장을 긴급 방문, 어민들을 위로하고 실태 파악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오수 시의원, 도시관리계획 및 자원순환 정책 열띤 시정질의



김오수 시의원(부흥·신흥·부주동)은 제36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자원순환의 기본정책 등에 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대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포 인구를 31만으로 계획한 결과 현재 빈집이 대거 발생되고 있고 아파트 공실율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으나 녹지는 축소되고 주거·상업·공업지역만 늘어나는 도시 팽창 확대정책으로 계획하고 있어, 저성장 시대에 맞는 인구수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하도록 촉구했다.

소각시설 건립과 관련, 목포시의 행정처리절차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앞으로 건립될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소각으로인한 대기오염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해 폐기물 감량화에 동참해 주기를 거듭 당부했다.